

일본의 한류 현상에서 나타난 내셔널리즘*

—셀러브리티 현상을 중심으로—

오 현 석**

(e-mail : ohyuns@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 |
| 2. 타자로서의 일본과 내셔널리즘 | 3.1. 한류 현상에 관한 소고 |
| | 3.2. 한류 현상에 나타난 셀러브리티 |
| | 4. 맺음말 |

키워드 : 日本(Japan), 韓流(Korean Wave), ナショナリズム(Nationalism), セレブリティ(Celebrity), 言説(Discourse)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내셔널리즘이 구축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내셔널리즘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국가공동체를 인식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각인시켜 나가는 과정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같은 국가의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국가공동체의 존재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사회의 국가공동체는 무의식적이거나 상식적인 의식의 틀 안에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들어 가게 된다.¹⁾

*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일본사회학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한류 현상을 통해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일본이라고 하는 인접 국가를 통해 다양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을 생산해 왔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에 기인하여 적대적 국가로서의 담론을 생산해 왔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성장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해방이후 일본의 대중문화는 경제의 대상이면서도, 암묵적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²⁾ 이는 해방이후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유입을 금지해 온 역사적 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개방이 된 것은 1998년부터 단계적 개방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개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보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타국을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의 생산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내셔널리즘은 1990년대 이후 다소 변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즉, 1990년대에 들어와서 탈냉전의 도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의 전체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내셔널리즘의 형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데, 일본에 관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도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한류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한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적 상황과 일본에서의 한류의 등장으로 전개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내셔널리즘의 특징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90년대의 사회적 상황과 조응하여 대중문화 영역에서 일본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이 구축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의 한류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담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의 한류현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내셔널리즘적인

1) Billig, M.(1996) *Banal Nationalism*, 1996 Sage Publication, p.77.

2) 김성민(2017:13)은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 금지와 월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말한다.

담론을 구축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고에서의 논의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생산/재생산 되어 온 내셔널리즘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타자로서의 일본과 내셔널리즘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줄곧 일본을 대상으로 한 담론을 생산해 내면서 내셔널리즘을 고양시켜 왔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대중문화는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 어떠한 담론을 생산해 왔는가?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 시켜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 적대적인 감정의 표출이면서도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우선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이유에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접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부각되고, 이를 통해 내셔널리즘의 고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과의 단절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한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대중문화는 계속적으로 금지하게 된다.³⁾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한일간의 관계를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 측면은 제외되는 기묘한 특징을 나타냈다.⁴⁾

3) 사실 국가간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만을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김성민(2017:39)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일간의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일본대중문화의 개방 선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암묵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는 금지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즉,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도 금지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담론도 타자로서의 일본을 생산해 되면서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게 된다.

또 다른 측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한 동경심의 발현이다. 즉, 금지의 대상인 일본의 대중문화가 실질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이면에는 막연한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⁵⁾ 이는 문화제국주의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제국주의론은 존 톰린슨의 주장에서 출발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말하는 문화제국주의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국가에 대해 문화적 침투를 통해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구축된다는 입장이다.⁶⁾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이론이다. 즉,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동경이 경제적 성장에 대한 동경의 대상에서 출발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예를 들면 만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993년 YWCA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1.5%로 일본만화를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⁸⁾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대중문화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금지의 대상이었지만,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이면

4) 이성환(2010)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p.134.

5)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아베(阿部)(2001:72-74)에 의하면, 패전 이후 일본은 미국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해 경제적 성장의 모델이라고 하는 담론의 구축과 이를 통한 암묵적인 동경의 대상임을 전제하였고, 이러한 타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승인을 기대하는 내셔널리즘 담론의 형성되었다고 강조한다. 아베는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 동경의 대상인 미국을 통해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아베는 이러한 과정을 미국에 대한 회구라고 표현하였다.

6)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 『文化帝國主義』、青土社、p.14.

7) 그러나 강명구(2001:114)는 이러한 문화제국주의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그는 문화제국주의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 관점의 애매함을 지적하면서, 문화제국주의가 단순히 대중문화를 통해 전세계의 소비자가 전부 그 안에 편입되어 간다는 전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즉, 강명구(2001:114)의 비판은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어서 수용자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수용과 저항, 거부의 과정도 존재함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8) 한겨레(1993.05.03.) 「넘실대는 일본만화 언제까지 방치하나」, p.9.

에는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미소 대립의 냉전시대의 종식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변동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즉 일본에 대한 적대적 담론과 동경에 관한 담론이 함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일본대중문화개방에 관한 논의이다. 한국사회에서 일본대중문화가 단계적으로 개방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부터이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서서히 일본대중문화개방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었다.⁹⁾ 그런데,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러한 주장은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첫 번째는 식민지 경험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하는 반대의 목소리이며, 이는 일본을 통한 적대적 내셔널리즘의 테제로서 작용한 것이다. 이성환은 일본대중문화개방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면서, 개방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있다.¹⁰⁾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대한 반대론의 입장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사회의 일종의 피해의식과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손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요구로 이어짐과 동시에 일본 문화유입을 금지하는 시대적 상황이 재현되었다고 강조한다.¹¹⁾ 이러한 관점은 본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타자로서의 일본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상처가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부각과 함께 대일본 적대적 내셔널리즘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개방에 대한 찬성의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전개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대중문화개방

9) 오현석(2019) 「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 -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18집, 한국일본학회, p.353.

10) 이성환(2010)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움 한일관계」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pp.131-156.

11) 전계서, 이성환(2010), p.135.

을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다.¹²⁾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한국사회에서 일본대중문화가 금지의 대상이면서도 암묵적으로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성환의 지적대로,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일본문화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발히 들어온 사실들을 상기시켜 보면, 단순히 일본대중문화의 금지가 식민지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¹³⁾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유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인 담론을 구축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본대중문화라고 말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즉 우리보다 좀 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의 대중문화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문화적 취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3.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

3.1. 한류 현상에 관한 소고

여기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류 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류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적인 단어로 인식되어 있으며, 일본의 한류 현상도 일반화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대 일본의 한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2002년 KBS2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겨울연가’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일본에서의 ‘겨울연가’가 방영된 것은 2003년 NHK의 BS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방영되었는데, 높은 시청률로 인해 2003년 12월에 재방영되었다. 이후 지상파에서의 방영을 요구하는 시

12) 오현석(2020) 「대중문화에 나타난 타자로서의 ‘일본’ -문화권력의 작동과 저항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22집, 한국일본학회, p256.

13) 전개서, 이성환(2010), p.142.

14)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해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나, 2000년 한국영화 ‘쉬리’의 빅히트를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クオン・ヨンソク(2010) 『「韓流」と「日流」文化から読み解く日韓新時代』、NHKブックス、p.17.)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사회에서 한류 현상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그 이면에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청자의 목소리가 있어 2003년 4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NHK종합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다.¹⁵⁾ 이러한 인기로 인해서 일본의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좋아진다는지¹⁶⁾, 주인공인 배용준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한국사회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또한 드라마 촬영지였던 강원도 춘천이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한류에 의한 경제적 효과도 커다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¹⁷⁾

이와 같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문화연구자 모리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첫 번째는 한일간의 문화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물론,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겨울연가’가 일본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¹⁸⁾ 두 번째는 일본사회에서 ‘중년의 여성팬’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사회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겨울연가’로 인해 일본사회의 대중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한 축으로 성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연가’의 인기로 인해 단순히 드라마라고 하는 특정 장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다 폭 넓은 실천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겨울연가’를 계기로 한국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성 팬들이 모여서 한국여행을 실천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드라마 시청문화를 벗어난 일상생활의 실천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¹⁹⁾

모리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분명히 기존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일회성 붐이 아닌 지속가능한 하나의 문화적 트렌트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겨울연가’의 인기에 의해 촉발된 한류 현상은 단순히 한시적인

15) <https://ja.wikipedia.org/wiki/%E5%86%AC%E3%81%AE%E3%82%BD%E3%83%8A%E3%82%BF> (검색일 : 2020.01.10.)

16) 서울경제(2004.12.19.) 「日, 한국 호감도 사상최고」 (<https://www.kinds.or.kr/v2/news/search.do?Bigkinds=94A1B34F1151DF3F033FA9B11DC26150> 검색일 : 2020.01.10.)

17) 오현석(2017) 「혼중성 이론에서 바라본 일본의 한류」 『일본학』 4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92.

18) 물론 황성빈(2005:373)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이 한일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시키거나 한일간의 상호이해를 긍정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19) 毛利嘉孝(2004) 「『冬のソナタ』と能動的ファン文化実践」 『日式韓流—『冬のソナタ』と日韓大衆文化の現在』、せりか書房、pp.14-17.

트렌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2010년대에는 K-pop에 대한 인기로 이어졌으며, 소비층도 젊은 세대로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⁰⁾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하였을 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고양, 즉 내셔널리즘의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연구자 이동연은 한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는 대중문화산업의 논리로서, 한류가 한국 문화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가주의의 논리로서, 한류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대 아시아 교역에 유리한 광고효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공존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문화소비자 향수권의 논리로서, 한류는 문화산업계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시아 내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기호를 넓히고 강력한 팬덤 문화의 구축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일상의 교통이 확대되는 터미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밑줄강조는 필자)²¹⁾

이동연의 분석에서 두 번째 주장, 즉 국가주의의 논리로서 한류를 바라보면,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분명히 다른 스펙트럼을 제공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대중문화영역에서 적대적 내셔널리즘과 동경의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던 일본이, 한류 현상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평화공존에 기여한다는 담론의 구축, 이는 곧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작동한 내셔널리즘과 명백한 차별성을 갖는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경험에서 나오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오는 대중문화의 금지나 경제적 성장의 모델로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내셔널적인 담론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한국 대 일본’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환기시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한류 현상을 통해서 구축되는 내셔널리즘은 세계화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담론 구축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 이향진(2011) 「한류와 자이니치」 『일본학』 3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71.

21) 이동연(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p.185.

1990년대 일본사회에서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부치에 의하면, 1990년대 일본의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아시아가 일본을 동경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담론은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의 작동으로서도 기능하였다고 주장한다.²²⁾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에 입각한 지배 국가로서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국주의에 의한 피지배 국가로서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한혜정은 한류 현상에 대해 세계화, 초국가주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는 집단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소나마 소프트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등장함으로써, 단일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를 넘어서는 공간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²³⁾ 이러한 조한혜정의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한류 현상 속에서 기존의 내셔널리즘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의 작동 방식을 파헤쳐 볼만한 제언이라고 판단된다.

3.2. 한류 현상에 나타난 셀러브리티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을 통해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의 내셔널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자.

본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방 이후 대중문화 영역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는 적대적이면서도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한류 관련 담론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 담론이 등장한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일본이라고 하는 과거 식민지 지배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일으키면서 자국의 문화적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일본의 한류 현상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에서의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일본에 관한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은 ‘한국 대 일본’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생산/재생산 되었다. 즉, 한국 대 일본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부각되면서 내셔널리즘을 구축해 나가는 작동방식이었다. 그렇지만, 본고의 관점은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하

22) 이와부치 코이치(2003) 「일본 대중문화의 이용 가치 -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97.

23) 조한혜정(2003) 「글로벌 시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40.

여, 또 다른 형태의 내셔널적인 담론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탈냉전시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도래로, 기존의 국가중심의 내셔널리즘은 변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구축 이후 내셔널리즘은 어떤 형태로든 생산/재생산되어 왔다.²⁴⁾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미디어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는 어떠한 형태로 내셔널적인 담론을 해독해 나갈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 대 국가 형태가 아닌, 하나의 개인에 대한 형태로의 소비를 통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국가 중심의 내셔널적인 담론의 구축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내셔널적인 담론의 구축이 이루어져, 이를 해독하는 수용자는 셀러브리티를 소비하면서 내셔널리즘이 구축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셀러브리티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 시대적 상황이 탈냉전,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보편화로 인해, 기존의 내셔널리즘이 약화되거나 쇠퇴될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고의 입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이 변화하더라도 내셔널리즘은 다른 형태로 생산/재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의 모델이 일본의 한류 현상에서 셀러브리티가 작동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생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셀러브리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은 대니얼 부어스틴이다. 그가 말하는 셀러브리티란 특정 인물의 위대함에 과도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서, 어떤 가짜사건이자 가짜인간이라고 비판한다.²⁵⁾ 이와 같은 부어스틴의 주장은 어떤 특정한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김수정은 셀러브리티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수용자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공동체의 상실이나 변화를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는 미비해져 가는 서구 조직화가 셀러브리티

24) 물론 내셔널리즘이 세계화나 탈냉전시대 등의 등장으로 그 의미가 쇠퇴하거나 미약해 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근대국민국가가 형성 이후에 등장한 내셔널리즘이 사회구조적 변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재생산되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5) 다니엘 J. 부어스틴(2002) 『幻影の時代 マスコミが製造する事実』、東京創元社、pp.55-64.

문화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통합 기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셀러브리티가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교섭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장은 개인의 스펙터클을 제시해 주는 시스템이자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축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셀러브리티가 기호로 작동하여 어떤 의미를 표상화시키거나 어떤 의미를 은폐시키거나 하는 것처럼, 다양한 담론적 접합을 구축하는 근본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²⁶⁾

김수정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셀러브리티 문화가 사회적 통합 기능을 이루어 낸다는 것과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즉,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 탈냉전화 등으로 인해 국가 중심의 내셔널리즘의 쇠퇴, 또는 약화 현상이, 일본에서의 한류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를 소비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내셔널리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의 출발점인 드라마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셀러브리티가 발생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1>은²⁷⁾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겨울연가와 관련된 신문기사 보도량을 분석한 것이다.²⁸⁾ <그림1>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겨울연가’에 관한 보도량은 2002년

26) 김수정(2014) 「초국가적 스타 형성에서의 기호전략과 의미작용 : 일본에서 장근석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4호, pp.80-81.

27) 신문기사 검색은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검색일: 2020.03.11.)에서 실시하였다. 검색한 신문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3개의 신문사로 한정했다. 검색 일자 기준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기사 건수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모두 카운트하여 작성하였다.

검색어	겨울연가 드라마	겨울연가 배우준	한류
경향신문	28건	12건	68건
국민일보	34건	9건	46건
문화일보	32건	8건	56건
2002년 기사 건수 총합	94건	29건	170건
경향신문	18건	5건	34건
국민일보	11건	3건	37건
문화일보	17건	8건	36건
2003년 기사 건수 총합	46건	16건	107건
경향신문	74건	39건	142건
국민일보	61건	26건	118건
문화일보	70건	36건	133건
2004년 기사 건수 총합	205건	101건	39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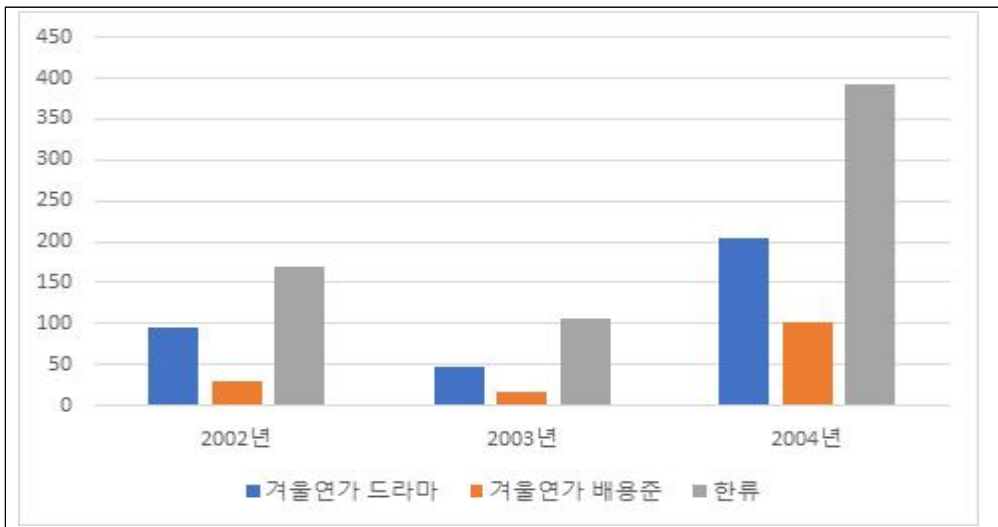
28) 신문기사의 양적 분석에 관한 이론은 크리벤돌프의 이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クリウス・クリッペンドルフ(1989) 『メッセージ分析の技法 「内容分析」への招待』、勁草書房、pp.8-10.)

한국에서 방영된 시기보다 2004년 일본에서 한류 붐을 일으킨 시기에 압도적으로 늘었다. 또한 한류라고 하는 표현이 2002년 보다 일본에서 ‘겨울연가’ 열풍이 일어난 2004년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사화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에서의 한류라고 하는 표현이 일본의 ‘겨울연가’ 열풍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한류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겨울연가’의 남자주인공 배용준에 관한 보도량을 살펴보자. 보도량의 그래프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배용준에 관한 기사는 2004년 일본에서의 ‘겨울연가’가 인기를 얻은 시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한국사회에서 배용준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분석 보다는 일본에서의 인기가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이를 통해서 배용준과 관련된 신문기사 보도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배용준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점이 아니고, 일본사회에서 한류의 열풍을 주도한 배용준, 그를 통해서 일본에서 셀러브리티화 된 개인을 통해 한국의 프라이드가 고취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배용준의 사례는 ‘겨울연가’가 갖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라고 하는 구조가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배용준이라는 하나의 코드화된 셀러브리티가 한국사회에서 국가 아이덴티티를 대신하는 기호로서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한 수용자들의 해독은 단순히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배용준이라고 하는 셀러브리티를 소비해 나가면서, 자국에 대한 내셔널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국가 대 국가’의 형태, 즉 ‘한국 대 일본’이라는 도식 속에서 내셔널적인 담론을 구축해 가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아닌, 배용준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일본사회에서 미디어 텍스트로서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용준, 이러한 셀러브리티화된 인물이 국가를 대신하여 하나의 기호화된 이미지로서 국가 아이덴티티를 재생산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1>의 보도량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방영 시기에는 ‘겨울연가’와 배용준의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일본에서의 한류 붐이 일어났을 때의 배용준 관련 기사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서 수용자의 해독이 특정 인물에 대한 스타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셀러브리티화된 배용준을 소비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배용준에 대한 인기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드화된 셀러브리티를 소비하면서 잠재적으로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역할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셀러브리티를 통해, 이는 국가공동체가 아닌 개인화된 하나의 미디어텍스트를 해독하면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림1> 2002년, 2003년,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 관련 신문 보도 건수

4. 맺음말

본고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일본의 한류 현상에 관한 담론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내셔널리즘을 생산/재생산 해 왔는지를 고찰해 본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내셔널적인 담론을 구축해 나가면서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고양시켜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장치로서의 내셔널리즘의 구축은 2000년대의 사회적 배경의 변용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적인 담론의 생산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 주

목하여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이라고 하는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내셔널적인 담론을 구축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의 내셔널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을 촉발시킨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서,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이 하나의 셀러브리티화되어서 한국사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탈냉전사회,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 중심의 내셔널리즘이 쇠퇴해 간다는 주장에서 탈피하여, 특정 개인을 통해서 국가 아이덴티티를 또 다시 암묵적으로 생산/재생산시킨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내셔널리즘의 작동 방식의 가능성을 제언해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본고의 관점은 기존의 사회 구조가 변용이 되더라도,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변형된 형태로 생산/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타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셔널리즘이 구축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논증은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한 글이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향후에는 본고의 주장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본고의 제한적인 고찰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적 시도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2001) 「지구화와 민족정체성 - 문화제국주의론의 재검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방송, p.114.
- 김성민(2017)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pp.13-39.
- 김수정(2014) 「초국가적 스타 형성에서의 기호전략과 의미작용: 일본에서 장근석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4호, 한국방송학회, pp.80-81.
- 오현석(2017) 「혼성성 이론에서 바라본 일본의 한류」 『일본학』 45집, 동국대학교 일보학연구소, p.92. (DOI: <https://doi.org/10.21442/djs.2017.45.03>)
- 오현석(2019) 「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 -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18집, 한국일본학회, p.353. (DOI: <https://doi.org/10.15532/kaja.2019.02.118.343>)
- 오현석(2020) 「대중문화에 나타난 타자로서의 ‘일본’ -문화권력의 작동과 저항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22집, 한국일본학회, p.256.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0.02.122.245>)

- 이동연(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p.185.
- 이성환(2010)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pp.131-156.
- 이와부치 코이치(2003) 「일본 대중문화의 이용 가치 -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97.
- 이향진(2011) 「한류와 자이니치」 『일본학』 3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71.
- 조한혜정(2003) 「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40.
- 황성빈(2005) 「일본의 한류 열풍」 『창작과 비평』 봄호, p.373.
- 서울경제(2004.12.19.) 「日, 한국 호감도 사상최고」 (<https://www.kinds.or.kr/v2/news/search.do;Bigkinds=94A1B34F1151DF3F033FA9B11DC26150> 검색일: 2020.01.10.)
- 한겨레(1993.05.03.) 「넘실대는 일본만화 언제까지 방치하나」, p.9.
- 阿部潔(2001) 『彷徨えるナショナリズム』, 世界思想社, pp.72-74.
- クリウス・クリッペンドルフ(1989) 『メッセージ分析の技法「内容分析」への招待』, 勁草書房, pp.8-10.
- クオン・ヨンソク(2010) 『『韓流』と『日流』文化から読み解く日韓新時代』, NHKブックス, p.17.
- ジョン・トム린ソン(1993) 『文化帝国主義』, 青土社, p.14.
- ダニエル・J・ブーアスティン(2002) 『幻影の時代 マスコミが製造する事実』, 東京創元社, pp.55-64.
- 毛利嘉孝(2004) 「『冬のソナタ』と能動的ファンの文化実践」 『日式韓流—『冬のソナタ』と日韓大衆文化の現在』, せりか書房, pp.14-17.
- Billig, M.(1996) *Banal Nationalism*, Sage Publication, p.77.

논문 투고 일자 : 2020.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要旨>

 日本での韓流現象にあらわれるナショナリズム
 -セレブリティ現象を中心に-

吳炫錫

本稿は、2000年代以後発生した日本の韓流現象に関する言説が、韓国社会でいかなるナショナリズムを生産/再生産してきた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戦後の韓国社会では、日本を対象に多様なナショナルな言説を構築しながら、同時に自国のナショナリズムをも高揚させてきた。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イデオロギー装置としてのナショナリズムの構築は、2000年代における社会的背景の変容とともに、新たな形のナショナルな言説を生産するようになった。本稿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持ち、日本での韓流現象と呼ばれる言説が韓国社会でいかなるナショナルな言説を構築してきたか、言い換えるならば2000年代以降の韓国社会においてナショナリズムがいかなる形で作動してきたか、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日本で韓流現象を巻き起こす契機となったドラマ「冬のソナタ」の主人公ペ・ヨンジュンがセレブリティ化され、韓国社会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を構築する役割を果たすに至ったと主張した。このような主張は、ポスト冷戦社会、グローバル化などの影響で国家中心のナショナリズムが衰退していくという主張とは異なり特定の個人を介して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喚起されるという他の形態のナショナリズム作動の可能性を提言し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に、本稿は、既存の社会構造が変容しても、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イデオロギーは、常に変容された形で生産/再生産されていることを強調した。

 A Study on Nationalism of the Korean Wave in Japan
 -Focusing on the celebrity Phenomenon-

Oh, Hyun-Suk

This study examines forms of nationalism that have been produced/reproduced in Korean society in the discourse on the Korean Wave phenomenon that occurred in Japan since the 2000s. Since its liberation, Korean society has been building various national discourses on Japan and has promoted nationalism within its own country. Howeve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ism as an ideological device has produced a national discourse along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2000s. This study focused on this situation and examined what kind of national discourse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Japan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nationalism has been spreading in Korean society since the 2000s. Consequently, through the drama *Winter Sonata* that sparked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Japan, he insisted that the male protagonist became a celebrity and played a role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 society. This view departs from the assertion that national-centered nationalism is declining due to the influence of post-Cold war society and globalization, and that it evokes national identity through individuals. This perspective is intended to emphasize that even if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 is transformed, nationalism is being produced and reproduced in a constantly modifying form.